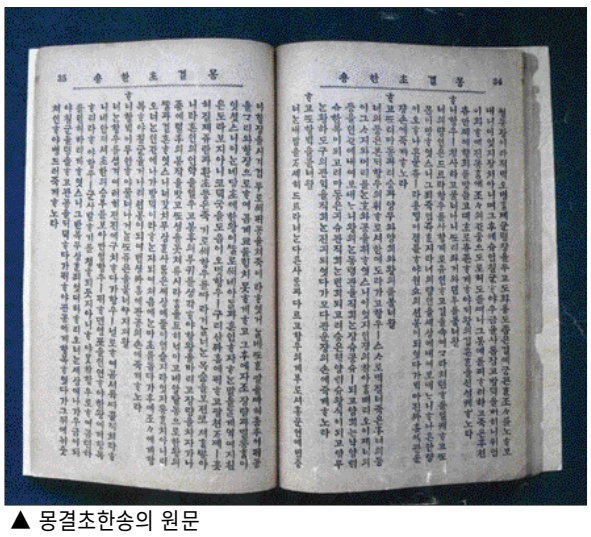
몽결초한송夢決楚漢訟 【9】

꿈에 판결한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 등의 송사

權 光 旭 역주



▲ 몽결초한송의 원문

이에 염라왕이 가로되 ‘ 마땅히 폐하로 하여금 인간人間(사람 사는 사이)에 나아가사 원수를 갚고 부귀를 누리시게 하오리니 폐하는 어가御駕를 도로히소서 ’ 하니 의제가 고맙다 칭사稱謝하고 봉련鳳輦(봉황을 그린 천자의 수레)에 올라 돌아갔다. 이에 염라왕이 좌우左右를 돌아보며 가로되,

“ 십전十殿의 명왕冥王이 모다 밝지 못하고 문무文武의 천관千官이 하나도 쓸 데 없도다. 이만 송사를 결단치 못하고 4백년까지 두었느뇨? ”

하며 크게 웃음을 웃어 마지 아니하였다. 이에 무리의 관원을 벌여 세우고 각각의 문서를 읽으라 하여 대송對訟을 행하되, 여러 사람을 차례로 점지點指하여 인간으로 보내 그 화복禍福과 보응報應을 받게 할새, 먼저 한왕漢王(유방)을 불러 말했다.

“ 그대는 불과 풍패豊沛(풍읍豊邑 · 패현沛縣) 땅의 한낱 주도酒徒(술주정뱅이)요, 사상泗上(강소성江蘇省 패현沛縣에 있는 소지명)의 미천한 정장亭長(정亭의 우두머리. 정은 전국시대 적정敵情을 살피기 위해 국경 지역에 설치한 정자 모양의 집인데 진한秦漢 시대 시골 10리마다 이를 설치해 치안과 나그네의 숙박을 담당케 한 역참 비슷한 형태의 관소였다)의 처지로 진秦나라의 어지러운 때를 타고 여러 영웅의 도움을 힘입어 다행히 항우를 멸하고 천하를 얻었으나, 그대의 허물을 의논議論할진대는 삼강三綱을 다 모르나니, 그대는 자세히 들으라. 부자지친父子之親은 인륜人倫의 으뜸이라, 이러므로 맹자孟子 가라사대, ‘ 순舜임금의 부친 고수瞽 앎(소경 점쟁이의 뜻인데, 순舜의 아버지 이름이 되었다. 고수瞽 앎로도 쓰며, 그가 눈이 있되 선악을 능히 분별치 못한다 하여 세상 사람들이 이름하였다. 고수는 순의 아래 아들을 편애하여 순을 죽이고자 지붕에 오르게 해서는 사다리를 치운 다음 불을 지르고, 우물을 파들어가게 하고는 흙을 무너뜨렸다)가 만일 국법을 범하여 살인하면 그 신하 법관 고요皐陶(고도로도 읽으며, 순임금시의 형관刑官으로서 옥관獄官의 우두머리가 되어 형정을 잘 다스려 서경書經에 고요모皐陶謨라는 편명篇名이 생겼다. 구요咎陶 · 구요咎繇로도 쓴다)가 반다시 법을 지켜 천자天子의 아비라 하여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때를 당하여는 순이 가히 위력으로 고요를 억제치 못할지라, 반다시 천자의 부귀를 버리고 고수를 업고 바다 가흐로 도망하리라 ’ 하였으니 이는 부자의 윤기倫紀가 천하보다 더 크고 중함을 이르심이라. 그대 부친 태공太公(아버지의 뜻이 있는 말로, 유방의 아버지 유집가劉執嘉이다. 역양 陽에 살았으며 뒤에 태상황太上皇으로 추존되었다)이 항왕項王에게 잡혀 여러 해를 고초를 겪고, 항왕이 그대를 항복받고자 하여 태공을 도마 위에 높이 앉히고 그대더러 이르되 ‘ 만일 항복치 아니하면 삶으리라 ’ 하거늘, 그대 대답하기를 ‘ 내 너로 더불어 함께 회왕懷王을 섬겨 그 명을 받아 언약을 맺고 형제가 되었으니, 나의 어버이는 곧 너의 어버이니 만일 삶거든 다행히 한 그릇 국을 나누어 내게 보내라 ’ 하였으니 이는 천하만 중히 여기고 어버이는 가벼이 앎이니 이 어찌 사람의 자식의 할 바이리오. 다행히 항우의 어진 마음으로 태공을 삶지 아니하여 그대의 불효지명不孝之名을 면케 하였고, 또 이미 여후呂后(유방의 정처正妻 여씨)의 아들 영盈(혜제惠帝 유영劉盈)으로 태자太子를 삼았거늘 또 무삼 마음으로 척희戚姬(한고조의 총희寵姬 척씨戚氏)의 아들 여의如意(유방의 넷째아들로서 척부인 소생이다. 태자가 되려다 실패해 조왕趙王으로 있다가 고조가 죽은 뒤 여후에게 독살되고 뒤에 은隱으로 시호되었다)로 바꾸어 세우려 하다가 일도 여의치 못하고 도리어 후일에 척희로 하여금 여후의 독수毒手를 만나 모자가 모다 참혹히 죽게 하였으며, 한신韓信 · 팽월彭越 · 영포英布 등 여러 공신을 다 주륙誅戮하고 그 삼족三族을 멸하였으니, 이 어찌 차마 사람의 할 바이리오. 일(이것)로 볼진대는 부자와 부부와 군신君臣의 윤상을 끊어 버렸고, 그대 매양 항우의 의제를 해한 일을 말하나, 그대 의제를 위하여 발상發喪(상례를 발표하여 행함)함이, 이는 동공董公(한漢의 하남河南 신성新城 사람으로 신성삼로新城三老의 하나이다. 유방이 낙양洛陽에 이르자 길을 가로막고, 항우가 무도하여 그 주군을 방자히 시해하였으니 천하의 도적이라, 무릇 인仁은 용기 없이 이루지 못하고 의義는 힘 없이 이루지 못하니 대왕은 마땅히 3군을 거느리고 나가 이를 정벌하라 하므로 이에 유방이 비로소 의제를 위해 발상하였다)의 말을 들어 의를 빙자함이라, 만일 의제로 하여금, 그 죽지 아니하였으면 그대 과연 그 아래 되기를 감심甘心하였으랴. 그대의 평생 행사 모다 사력詐力(속임에 힘을 다함)만 주장하였으니 어찌 통한痛恨치 아니하리오. 이제 그대로 하여금 인간에 나가 한漢나라 헌제獻帝(후한의 마지막 황제 효헌제孝獻帝 유협劉協. 영제靈帝의 둘째아들 진류왕陳留王으로서 즉위했으며, 권신 동탁董卓에 의해 낙양에서 장안長安으로 천도하고, 조조曹操에 의해 장안에서 허창許昌으로 천도, 조조의 아들 조비曹丕에게 찬위되어 산양공山陽公으로 강봉되었다. 초평初平 · 흥평興平 · 건안建安 등의 연호로 32년 재위하였다)가 되게 하나니, 몸은 비록 천자 되었으나 조조曹操(후한 패국沛國 초 사람으로 추존 위 태황제魏太皇帝 숭崇의 아들이다. 자가 맹덕孟德이고 아명은 아만阿瞞 · 길리吉利, 시호가 무武여서 뒤에 위 무제로 불리게 되었다. 그 본디의 성은 하후夏侯씨인데 아버지 숭이 환관 조등曹騰의 양자가 되어 변성하였다. 그 아버지 숭은 숭嵩으로도 쓰고 자가 거고巨高인데 너그럽고 신중한 인품에 충효가 지극하여 사례교위司隷校尉 · 대사농大司農 · 대홍려大鴻곱 · 태위太尉에 이르렀으며 뒤에 손자 조비에 의해 태황제太皇帝로 추존되었다. 조조는 원체 기지와 권모술수에 능하고 20세에 효렴孝廉으로 천거되어 벼슬하다가 황건적黃巾賊의 난에 기도위騎都尉로서 영천潁川의 적을 토벌했다. 이후 가산을 털어 의병을 모집해 동탁董卓을 치고 장안長安에서 낙양에 들어가 폐허가 된 2백년 도읍을 버리고 허창許昌으로 천도하여 이름을 허도許都라 하였다. 원소袁紹와 원술袁術을 차례로 격파하고 스스로 대장군이 되어 기주목冀州牧을 겸하다 승상丞相에 오르고 구석九錫을 받아 위왕魏王에 봉해졌다. 제위帝位에 오르라는 측근의 건의에 스스로 주 문왕周文王에 비유하며 끝내 인신人臣으로 죽었다. 풍류와 문학文學을 좋아해 30년 전쟁 중에도 독서하고 부시賦詩하였으며 손자약해孫子略解 · 병서적요兵書摘要 등의 저서도 남겼다. 아들 비丕가 찬위하여 무제武帝로 추존되고 태조太祖의 묘호廟號를 받았다)의 핍박을 받아 세월을 보내다가 마침내 조비曹丕(조조의 차남으로 자는 자환子桓이며 아버지에게서 위왕을 습위襲位하여 헌제를 폐하고 제위에 올라 허도에서 낙양으로 천도하고 국호를 위魏라 하였다. 시호가 문제文帝로서 묘호廟號는 세조世祖이고 재위는 6년이었다. 문학을 좋아하고 박람강기博覽强記하여 전론典論과 시부 1백 편을 남겼으며 위문제집魏文帝集이 있다)에게 그 위位를 아이(앗기)게 하노라. ”

한왕이 이 말을 듣고 무료無聊히 물러나거늘, 염라왕이 또 여후를 불러들여 이르되,

“ 네 죄상은 내 이미 다 말한 바이라, 너는 세상에 나가 복황후伏皇后(복후伏后로 잘 불리며 복완伏完의 딸, 이름은 수壽이다. 헌제의 후가 되어 황제의 권한을 회복시키고자 조조를 제거하려다 모사가 탄로나 임신한 상태로 살해되었다. 그 아버지 복완은 환제桓帝의 딸 양안공주陽安公主에게 장가들고 거기에서 난 딸이 또한 효헌제의 후가 되어 영화로웠으며 남과 다툼이 없다 하여 복불투伏不鬪로 불렸다. 조조가 궁궐에 들어와 황제의 애희 동귀인董貴人을 죽이는 것을 보고 복후가 그 잔혹상을 기술한 글을 아버지 복완에게 보내 외부의 힘을 빌어 조조를 도모하고자 하다가 일이 탄로되어 복완도 유폐, 살해되었다)가 되고, 비록 두 아달을 두었으나 자로(자주) 환난을 겪고 구차히 지내다가 나종에 두 아달로 더불어 다 조조의 손에 죽고 종족宗族이 멸망케 하노라. ”

하니 여후가 울며 죄 없다 애걸하거늘 염라왕이 꾸짖어 물리쳤다. 그리고 한신韓信을 불러들여 왈,

“ 너는 유방을 위하여 개세지공蓋世之功(세상을 뒤덮을 공)을 세웠거늘 왕후지락王侯之樂(왕후장상王侯將相이 되어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애매히 죽었으니 어찌 차嗟홉지(차탄스럽지) 아니하리오. 너를 세상에 내어보내나니, 성명은 조조曹操요 자字는 맹덕孟德이라, 모략謀略(지모智謀와 계략)은 손빈孫븅(전국시대 병법가 손무孫武, 즉 손자孫子의 후손으로 이름은 전하지 않고, 정강이를 베는 빈형븅刑을 당해 빈으로 호칭되었다. 소시에 방연龐淵과 함께 귀곡자鬼谷子에게 병법을 배웠는데 위魏의 장수가 된 방연의 시기로 두 다리가 잘리고 얼굴에 글자를 새기는 자자형刺字刑을 당했다. 제齊나라에 중용되어 방연을 마릉馬陵으로 유인해서는 대패시켜 자살케 했다. 그가 짐짓 후퇴하면서 방연을 속이고자 부뚜막 수를 줄여 도망병이 많은 것처럼 꾸민 손빈감조책孫븅減 策과 군사 운용에 그가 세를 중시한 바를 일컫는 손빈귀세孫븅貴勢 등의 성어가 생겼다)과 오기吳起(전국시대 위衛나라 사람으로 처음에 노魯나라 장수가 되어 제齊나라를 정벌하고 다시 위魏나라 문후文侯의 장수가 되어 진秦나라와 한漢나라를 막아 싸웠다. 위문후가 죽은 후에는 초楚나라 도왕悼王의 정승이 되어 백월百越과 삼진三晉 및 진秦을 정벌하였으나 도왕이 죽은 후 귀척대신貴戚大臣의 원망을 사 피살되었다. 병법의 대가로 손자孫子와 병칭되었고 저서 오자吳子가 있다) 같고 지혜가 과인過人하여 치세治世(잘 다스려지는 세상)의 능신能臣이요 난세亂世의 간웅奸雄이라, 협천자이령제후挾天子以令諸侯(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함)하며 헌제獻帝를 허도에 가두어 날로 핍박하며 복황후를 죽여 원한을 풀고 천하에 횡행하여 이름이 우주에 떨치게 하노라. ”

하니 한신이 고두叩頭(이마로 땅을 두드리듯 조아림)로 사은謝恩하고 물러 나갔다. 염라왕이 척희戚姬(한고조 유방의 총희寵姬로 정도定陶 사람, 조왕 여의如意의 생모이다. 고조의 4남인 여의를 태자로 세우려다 실패하여 고조 사후 여후呂后의 박해로 벙어리가 되고 측간에 갇혀 인체人 로 불리다 죽고, 아들 여의도 독살되었다)를 불러들여 말했다.

“ 너는 양가良家의 여자로 한왕의 금석金石 같은 언약만 믿었더니, 마침내 그림의 떡이 되고, 여후의 독수毒手를 만나 자식과 함께 참혹한 화를 당하였으니 어찌 불쌍치 아니하리오. 너로 하여금 인간에 내어보내나니 다시 여자의 몸이 되어 성은 미씨 氏(동해東海 구ㅓ 땅 사람 미축 竺의 딸로 유비의 제1부인)라 유비劉備(삼국시대 촉한蜀漢의 소열황제昭烈皇帝 선주先主, 자는 현덕玄德이고 탁현 縣 출신이다. 중산정왕中山靖王 유승劉